

한류(K-문화) 시대 한국계 작가 영문학 작품의 차용 전략에 기반한 한영 문학번역의 이국화 규범 연구

김순미(숙명여자대학교)

1. 서론

21세기 들어 ‘한류(Korean Wave)’는 K-드라마, K-팝, 영화, 웹툰, 문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어와 문화에 관한 관심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김치(kimchi), 한복(hanbok), 오빠(oppa) 등 한국 고유의 문화적 요소들이 영어권 대중문화 콘텐츠에 빈번히 등장하면서 이들 단어는 이제 주변적 외국어 수준을 넘어 영어 사용자들 사이에서 일상어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어의 영향력과 확산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은 ‘문화고유어(culture-specific items, CSIs)’¹⁾ 중 일부가 옥스퍼드 사전(Oxford English Dictionary, OED²⁾)에 정식 등재되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최근 “갑작스럽게 한국어 단어들의 등재가 확대된 것은 한류의 영향력 덕분”(김정우, 2021, p. 9)이다. OED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영어로 유입되는 한국어 유래 단어의 급증은 주로 ‘한류’ 현상 때문이라 보

1) 본 연구에서 말하는 ‘문화고유어’는 Newmark(1988)가 정의한 ‘특정 문화에서만 존재하거나, 다른 언어권에서는 등가 개념이 부재한 어휘’를 의미한다. “‘문화소’, ‘문화특수어’, ‘문화관련어휘’ 등 다양한 유사 용어가 있으나”(신상범, 2019, p. 113), 본 연구에서는 ‘문화고유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 이후 논문에서는 옥스퍼드 사전을 OED라 한다.

면서 이와 같은 K-트렌드(K-팝, K-드라마, K-뷰티, K-푸드, K-스타일)는 한국 문화의 글로벌 성공과 관심의 증가를 의미하는 동시에 전세계 영어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한국 어휘를 소개하는 발판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Salazar, 2025b).

본 연구는 이러한 한류 기반의 한국어 확산과 OED 등재 현상을 단순한 어휘 현상이 아닌, “번역 규범의 변동(sign of shifting translational norms)”(Toury, 1995, p. 61)으로 해석한다. 규범의 변동은 새로운 문학 체계나 문화적 접촉, 혹은 정치 사회적 압력의 결과로 규범의 내용과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한류의 전세계적인 확산과 한국어 어휘의 OED 대거 등재와 같은 사회적 조건은 영미권의 전통적인 자국 중심 번역 환경을 “이국화(foreignization)”(Venuti, 1995)로 전환시킬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 변화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변화하는 사회, 언어 환경을 배경으로 한영 문학번역에서 문화고유어를 비롯한 다양한 한국어 표현의 차용 규범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어권 독자들의 수용성 측면에서 검증받은 한국계 작가들의 영문학 작품 내의 차용어 활용 방법을 분석하고 이를 번역에 적용한다. 연구 대상 작품은 이미 영어권 독자들의 수용성 측면에서 검증받았기 때문에 작품이 보여주는 각종 한국어 차용어 음차 표기 전략은 번역가들에게 이국화의 “예시적 규범(exemplary norm)”(Toury, 1995, p. 55)이 될 것이라 본다. 연구 대상은 최근 10년 내 해외에서 성공을 거둔 한국계 작가들의 작품으로 2017년 출간된 이민진(Minjin Lee)의 『Pachinko(파친코)』, 2021년 출간된 미셸 자우너(Michelle Zauner)의 『Crying in H Mart(H마트에서 울다)』와 허주은(June Hur)의 『The Forest of Stolen Girls(사라진 소녀들의 숲)』, 2024년 출간된 이미리내(Mirinae Lee)의 『8 Lives of a Century-Old Trickster(이름 없는 여자의 여덟 가지 인생)』 등이다. 한국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하고 있어 문화적 요소가 빈번히 등장할 뿐 아니라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국내에서도 인지도 높은 작품들이다. 연구 대상 소설에서는 OED에 등재된 문화고유어와 호칭뿐만 아니라 다양한 OED 비등재 문화고유어, 조사, 감탄사, 단문에서도 음차표기 현상을 볼 수 있기에 이들을 범주화해 분류하고 표기 양상을 고찰한 후 이를 기준으로 한영 문학번역에

서 새로운 번역 방법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류 시대, 한국계 작가들이 영어로 집필한 소설 속에서 한국어 문화고유어(OED 등재어와 비등재어), 호칭어, 호격 조사, 감탄사 및 단문은 각각 어떻게 표기되는가? 둘째, 이러한 사용 양상은 베누티(Venuti, 1995)의 이국화 전략 및 투리(Toury, 1995)의 “번역 규범 전이(shift of norms)”(p. 61)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즉, 한영 문학 번역에서 ‘전략적 이국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가?

2. 이론적 배경

2.1 한류 확산을 통한 한국어 위상 고조와 OED 등재의 의의

OED는 150년 역사를 지닌 영어사전으로, 영어권에서 천 년 이상 사용된 60만 개 이상의 단어를 수록한다(Ahn & Kiaer, 2024, p. 73). 최근 온라인 버전은 3개월마다 업데이트되며, 과거 영국 중심 사고를 벗어나 다언어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언어가 영어권에서 비영어권으로 일방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상호작용하며 역동적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다(p. 69). 다시 말해, 새로운 영어 단어가 영국이나 미국 같은 곳에서만 생겨나는 것이 아니며 아시아 전역의 사람들이 각자의 환경에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교류하고, 이를 다시 전 세계 영어 사용자들에게 전파하는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Salazar, 2025a). 이처럼 OED 등재는 특정 단어가 공식적으로 영어의 지위를 가지게 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번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언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이같이 권위 있는 OED에 2021년 9월에는 ‘오빠(oppa)’, ‘치맥(chimaek)’, ‘떡방(mukbang)’ 등 26개의 한국어 단어가 무더기로 신규 등재되었고(김정우, 2021; Salazar, 2025a), 3년만인 2024년 ‘달고나(dalgona)’, ‘막내(maknae)’, ‘떡볶이(tteokbokki)’ 등 7개의 단어가 등재되었다(류지영, 2025). 다음 <표 1>에는 지금까지 OED에 등재된 단어들을 음식, 스포츠, 호칭 등 범주별로 구

분하여 최근 등재된 것부터 나열하였다. 특징은 음식(달고나, 김밥, 떡볶이, 치맥 등), 식재료(고추장, 된장), 주류(소주, 막걸리 등), 음식 콘텐츠(떡방) 관련 단어가 30%에 달해 압도적으로 많은 점, 최근 들어 호칭 관련 단어(언니, 오빠, 형, 누나 등)가 대거 등재되고 있다는 점이다.

표 1
OED 등재 한국어

분류 범주	등재 단어
음식 문화	dalgon coffee 2025, dalgon 2025, jjigae 2025, tteokbokki 2025, banchan 2021, bulgogi 2021, chimaek 2021, dongchimi 2021, galbi 2021, japchae 2021, kimbap 2021, mukbang 2021, samgyupsal 2021, doenjang 2016, gochujang 2016, soju 2015, bibimbap 2011, kimchi 1976, makgeolli 1976
놀이	noraebang 2025, pansori 2025, manhwa 2021, PC bang 2021, tang soo do 2021, trot 2021, Kono 1976, taekwondo 1982
호칭, 계급	hyung 2025, maknae 2025, noona 2021, oppa 2021, unni 2021, chaebol 2017, yangban 1982, gisaeng 1976
신어/유행어, 영어 변형어	aegyo 2021, daebak 2021, fighting 2021, hallyu 2021, Konglish 2021, K-drama 2021, K-beauty 2021, K-com words 2021, skinship 2021, K-pop 2016
문화유산 (관습, 의복, 주거 등)	hanbok 2021, Juche 2019, hagwon 1988, onmun 1982, sijo 1982, ondol 1982, Hangul 1976
단위	ri 1982, won 1982, myon 1976

‘치맥’, ‘떡방’, ‘달고나’, ‘애교’ 등 단어가 등재되었다는 것은 OED 등재어가 K-문화 팬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된 단어임을 유추할 수 있다. 즉, 한류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용되던 말들이 한류의 인기 확대에 따라 더 많은 사람에게 사용되고 그것이 결국 수많은 용례를 만들어 사전에 등재된 것이다(김정우, 2021, p. 10). 과거에는 공식 미디어나 교육 기관을 통해 하향식(top-down)으로 이루어지던 언어의 전파가 이제는 수백만 팬들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사용하고 의미를 공유하면서 상향식(down-top)으로 세계적 인지도를 얻게 되는 디지털

시대의 변화를 거치고 있다 할 수 있다(Ahn & Kiaer, 2024).

이를 반영하여 OED는 해외에서 실제 사용되는 용례와 변화된 의미까지 포착하여 실고 있다. 다시 말해 “옥스퍼드 사전에 실린 ‘한국어’의 의미는 우리가 아는 한국어와는 다르다”(김현유, 2022). 아티클에 언급된 대표적인 예는 ‘오빠(oppa)’로 OED는 ‘오빠’의 첫 번째 의미를 “여성이 나이 많은 남성이나 친구를 부르는 호칭”, 두 번째 의미를 “한국의 유명 배우나 가수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는 호칭”이라고 하여 ‘oppa’가 남녀를 불문하고 사용되는 팬덤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다른 예는 ‘많은 양의 음식을 먹으면서 시청자와 소통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인 ‘먹방’으로, 국립국어원이 제시하는 로마자 표기법 ‘meokbang’을 따르기보다 팬덤이 사용하는 ‘mukbang’을 공식화했다.

2.2 베누티의 자국화 전략에서 이국화로

본 연구에서는 문화고유어 번역의 다양한 방법이 자국화에서 이국화로 옮겨갈 가능성을 다루고 있다. 이에 문화고유어를 포함하여 어휘적 비등가성이 발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주요 전략을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베이커(Baker, 2018, pp. 46-57)는 어휘적 비등가성을 해결하기 위한 여섯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이들 방법은 다음 여섯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 중 1)과 2)의 일반화와 약화, 3) 문화적 대체는 본 연구의 핵심 논의인 자국화 전략과 4) 차용어 사용은 이국화 전략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 1) 원문의 구체적인 단어를 대상 언어의 일반적인 단어(상위어 superordinates)로 대체(translation by a more general word)
- 2) 원문의 감정적, 수사적, 문화적 의미를 더 중립적이거나 덜 강렬한 단어로 번역(translation by a more neutral/less expressive word)
- 3) 원문 문화의 고유한 항목을 대상 문화에서 유사한 역할을 하는 익숙한 항목으로 대체(translation by cultural substitution)
- 4) 원어 단어를 그대로 차용하고, 필요에 따라 뒤에 설명을 덧붙임(translation using a loanword or loanword plus explanation)
- 5) 원문 단어의 의미를 대상 언어의 여러 단어를 사용하여 풀어쓰거나 설명(translation by paraphrase)

- 6) 해당 단어나 구문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번역문의 흐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생략(translation by omission)

영미권에서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번역에서는 ‘문화고유어’를 “상위어(superordinate)”(p. 46) 사용이나 “문화적 대체(cultural substitution)”(p. 52)로 번역하는 “자국화(domestication) 중심 전략”(Venuti, 1995)이 전통적으로 선호되었다. 이 전략은 원문의 이질적 요소를 대상 문화의 독자들에게 친숙하고 용인되는 가치관이나 규범에 강제로 맞추어 변형하는 자민족 중심적 축소 번역(ethnocentric reduction)을 의미한다(p. 20). 즉, 독자가 속한 문화(주로 영미권)를 세계의 중심으로 간주하고, 외국 문화를 그 기준에 맞춰 판단하며 재단하는 태도이며 영미권 번역의 핵심 목표인 유창성(fluency)과 투명성(transparency)을 달성하기 위해, “원문 속의 언어적, 스타일적 복잡성이나 낯선 요소들을 의도적으로 축소(absence of any linguistic or stylistic peculiarities)”(p. 1) 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스토리 전달과 감정 전달이 중요한 문학 텍스트의 경우, 문화고유어가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도착어 국가의 요소로 동화시켜 번역함으로써 의미를 전달”(임순정, 2014, p. 199)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반해 “이국화(foreignization)는 외국 텍스트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 독자를 낯선 세계로 이끌며, 지배 문화의 가치 체계에 저항하는 ‘탈민족적 압력(ethnodeviant pressure)’으로 작용한다. 3)”(Venuti, 1995, p. 20). 구체적 번역 지침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베누티(1995)는 외국 텍스트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를 ‘드러내는(register)’ 번역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외국어 단어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낯선 문화 요소를 독자에게 직접 노출시켜 문화적 이질성을 보존하는 이국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OED 등재 확대가 번역과 관련하여 의미가 있는 이유는 베이커(2018)의 번역 방법 중 “차용어 사용이나 차용어에 설명을 추가하는 방법”(p. 53)이나 차용어 사용 후 “주석(footnotes)이나 풀어쓰기(paraphrase)”(p. 57) 등 이국화 전략이 더 활발히 사용될 가능성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해외 홍보물의 문

3) Foreignization is an ethnodeviant pressure on those (cultural) values to register the linguistic and cultural difference of the foreign text, sending the reader abroad.

화고유어 번역에 관한 연구(임순정, 2014)에 따르면 문화고유어를 번역할 때는 “출발어 문화의 인지도, 출발어 문화에 대한 동조 현상, 잠재적 독자의 유형, 그리고 출발어 텍스트의 기능과 번역의 목적 등을 감안”(p. 178)하게 된다. 도착어권에서 출발어권 문화가 친숙하고 호감도가 높으며 특히 텍스트의 주 타겟층이 이국 문화에 관심이 많다면 더 직접적으로 차용어를 번역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이국화 가능성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요소 중 하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교류하는 한류 팬들이다. 한국 문화와 연관된 신조어들은 팬들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관객에게 급속히 확산되었다(Ahn & Kiaer, 2021). 팬들의 차용어 사용은 이국화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한류의 전 세계적인 확산은 ‘오빠’와 같은 호칭들이 새로운 문화적 차용어로서 중요성을 얻었음을 의미하며, 차용어 사용은 원래 의미는 유지 하면서 동시에 정서적 함의를 강화하는 방법”(Kiaer, 2023, p. 40)이라 문화적, 정서적으로 긍정적 의미가 있다. 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어 차용어를 사용할 뿐 아니라 변형도 한다. 예를 들어 “영어로 ‘thank you’라고 말하는 대신 한국어와 영어를 합성하여 ‘Gomawo so much’라는 구절을 만드는 등 단어들을 영어의 통사구조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한국어에서 추출된 하이브리드 문장을 만들기까지 한다”(p. 129). 이러한 언어 사용은 한국어 차용어가 글로벌 정서의 표현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K-콘텐츠의 전 세계적 흥행에도 불구하고 자막이라는 ‘얇은 장벽’ 때문에 언어의 본질적인 의미가 전달되지 못하는 현실”(p. 9)에서 K-팝 팬들이 원어를 차용함으로써 ‘오빠’가 단순히 ‘older brother’로 번역될 때 사라지는 문화적/사회적 의미와 정서적 함의를 보존하고 강화시킨다는 의미이다.

2.3. 번역 규범(translational norms)과 사회문화적 맥락

투리(1995)는 번역을 사회문화적 행위로 규정하고, 번역행위를 지배하는 규칙체계를 ‘규범(norms)’으로 설명하였다. 규범이란 번역가들이 특정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행동 양식이나 제약 사항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적 가치나 이데올로기가 구체적인 행위(번역 전략)로 나타난 것이다(p. 55). 번역 규범은 “초기 규범(initial norms)”, ‘운용 규범(operational norms)’

등으로 구분되며, 특정 시기와 사회의 문화적 기대, 제도, 독자 수용 태도에 따라 번역의 방식은 달라진다”(pp. 53-61). 즉, 번역은 고정된 규칙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역동적 행위이다. 한류의 전 세계적 확산은 바로 이러한 규범적 변화의 실질적 배경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영어권 번역에서는 한국어의 문화고유어를 자국화 방식으로 치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규범’이었다. 예를 들어, ‘된장찌개’는 ‘soybean paste stew’, ‘오빠’는 ‘older brother’로 번역되어야 한다는 암묵적 합의가 존재했다. 한 예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처음 번역된 2015년만 해도 된장은 ‘soy bean paste’라고, 삼겹살은 ‘belly pork’라고 썼다⁴⁾. 『엄마를 부탁해』와 같은 베스트셀러의 한영 문학번역에서 ‘panchan(반찬)’, ‘pyoung(평)’, ‘ri(리)’, ‘makgoli(막걸리)’ 같은 차용어가 사용되기도 했다(조숙희, 2015). 그러나 이 국화의 예외적 사례였지 차용어를 활용한 음차번역에 대한 규범이 만들어질 사회적 환경이 조성된 것은 아니었다. 한편 OED 등재와 한류 콘텐츠의 폭발적 보급 이후, 독자들은 ‘doenjang’, ‘oppa’와 같은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 토대를 갖추게 되었다. 더불어 ‘doenjang’이 2017년, ‘samgyeopsal’이 2021년 OED 등재된 이후 된장을 ‘doenjang’으로, 삼겹살을 ‘samgyeopsal’로 쓰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분위기가 되었다(김현유, 2022). 이는 투리(1995)가 제시한 “규범의 전이(shift of norms)”(p. 61)⁵⁾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예시이며, 이 시점의 번역가는 자국화의 압력을 따르기보다 이국화의 예시적 규범(exemplary norm)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차용번역 전략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로, 권오숙(2014)이 한국 문학 텍스트 30편의 한영 번역에서 갖, 두루마기, 막걸리, 떡 등 의식주 문화소의 번역 양상을 분석하여 일반화, 등가어, 생략 전략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4) 원문: 어머니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한강, 2007, p. 45)

번역: Her mother was boiling a pot of soybean paste stew. (한강, 2007/2015, p. 37)

원문: 그녀는 삼겹살 굽는 소리를 들었다. (p. 46)

번역: She could hear the sizzling of pork belly on the grill. (한강, 2007/2015, p. 38)

5) 번역 규범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요인에 의해 전이, 심지어 대체될 수 있다(Norms are not static; they are liable to change, to be modified, or even replaced in the course of time, as the result of social and cultural processes.)(Toury, 1995, p. 61).

있음을 보여주었다. 김영신(2016)은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분석하여 자국화 전략이 우세하게 나타났음을 확인하고 이국화 전략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들 선행연구는 과거의 한영번역 전략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음차번역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번역학계의 일반적 연구 방법인 원문-번역문 대조 방식에 기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영미권 독자의 수용성이 이미 검증된 한국계 작가의 영문 창작물을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이국화 규범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원문-번역문 대조 연구와 차별된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한국계 작가의 영문 소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영어권 독자의 높아진 문화적 수용성이 한영 문학번역의 이국화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이를 통해 전통적 ‘원문-번역문 비교’를 넘어, 창작 과정에 이미 내재된 ‘번역적 사고’(Bassnett, 2013)를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예시적 규범’(Toury, 1995)을 도출하려는 시도이다.

3.1 연구대상 설정과 의의

최근 10년 내 해외에서 문학적 상업적 성공을 거둔 한국계 작가들의 영문 소설 네 권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작품은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에드거상 최종 후보, 역대 선인세 계약 등 객관적인 시장 성공과 비평적 호평을 통해 영어권 독자의 수용성이 검증된 텍스트이다. 또한 제일 한국인(Pachinko), 한국계 디아스포라의 정체성 및 음식(Crying in H Mart), 조선 시대 무속 신앙(The Forest of Stolen Girls), 북한과 이데올로기(8 Lives of a Century-Old Trickster) 등 다양한 한국 문화 및 역사적 맥락을 다루고 있어, 광범위한 문화고유어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적합하다. 작가의 창작 행위는 문화고유어 처리에 있어 번역가들보다 전통적인 자국화 규범의 구속을 덜 받는다는 면에서 이들의 과감한 차용 전략은 한영 번역가들에게 새로운 이국화 전략 선택을 위한 선행 지표로 기능할 수 있다. 각 작품의 내용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3.1.1 Pachinko(파친코)

2017년 출간된 이민진 작가의 『Pachinko』는 전미도서상(National Book Award) 최종 후보에 오르며 미국 문단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National Book Foundation, 2017). 뉴욕 타임스 서평란에서는 이 작품을 “역사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개인들의 삶을 훌륭하게 담아낸, 풍부하고 몰입감 높은 서사”(Lee, 2017)라고 극찬했으며, 수많은 비평가들은 이 소설이 서구 독자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제일 한국인(Zainichi)의 고난과 생존의 역사를 주류 담론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그 문학사적 의의를 높이 평가했다. 이 작품이 Apple TV+ 시리즈로 드라마화된 것은 한국의 근현대사라는 무겁고 복잡한 주제가 전 세계 독자들에게 충분히 공감을 얻을 수 있음을 증명했다. 특히 한국의 전통적인 주거 문화와 계급, 풍습을 아우르는 다양한 차용어, 즉, 온돌(ondol), 양반(yangban), 요보(yobo)⁶⁾, 추석(Chuseok), 갈비(galbi), 한복(hanbok) 등이 작품 전체에 녹아 있다.

3.1.2 Crying in H Mart(H 마트에서 울다)

이 작품은 인디 밴드 ‘재패니즈 브렉퍼스트(Japanese Breakfast)’의 리더로도 유명한 자우너의 회고록으로 어머니의 암 투병과 죽음 이후 저자가 한인 마트(H Mart)에서 한국 음식을 매개로 슬픔을 애도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솔직하고 감동적으로 그려낸다(장희동, 2025). 2021년 출간과 동시에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 1년 이상 순위에 머물렀고 뉴욕 타임스, NPR 같은 유수의 언론매체와 아마존 등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었고 버락 오바마 추천 도서에 꼽히기도 하는 등 경이적인 상업적, 문학적 성공을 거두었다. 이 작품의 성공은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디아스포라의 특수한 경험, 특히 어머니의 음식을 통한 문화 전승의 과정이 국적을 떠나 현대 독자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서사적 힘을 갖는지를 증명하고 있다. 작가는 미역국(miyekguk), 떡국(tteokguk), 순두부찌개(soondubu jjigae), 산낙지(sannakji) 등 방대한 음식 차용어를 통해 어머니와의 추억과 한국의 문화유산을 그려낸다.

6)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한국인(조선인)을 얹잡아 보거나 낮추어 부르던 호칭

3.1.3 The Forest of Stolen Girls(사라진 소녀들의 숲)

청소년(YA) 역사 미스터리라는 독특한 장르를 개척하며 주목받는 허주는 작가가 2021년에 발표한 소설로 15세기 조선을 배경으로 13명의 소녀가 실종된 사건을 파헤치는 미스터리 스릴러이다. 이 작품은 미국의 저명한 문학상인 에드거상(Edgar Award) 청소년 부문 최종 후보에 오르는 등 비평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었다(김남중, 2022). 이 소설의 의의는 서구의 젊은 독자들에게 한국의 전근대사, 특히 제주도의 무속 신앙과 여성의 삶을 매력적인 장르 서사를 통해 소개했다는 점에 있다. 이는 한류의 영향력이 현대 대중문화를 넘어, 한국의 전통 사머니즘 역사와 전통에 관한 관심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허 작가 역시 차용어 사용에 적극적이었는데, 특징은 사머니즘 관련 용어를 많이 차용한 점, 그리고 『Crying in H Mart』의 자우너 작가와 마찬가지로 한국어 차용어에 이탤릭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자칫 낯설 수 있는 한국의 역사적, 민속적 개념들을 자신감 있게 세계 문화의 중심부로 이끌어내고 있다.

3.1.4 8 Lives of a Century-Old Trickster(이름 없는 여자의 여덟 가지 인생)

2024년 출간된 이미리내 작가의 소설로,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남북 분단 등 한국 근현대사의 가장 격동적인 시기를 온몸으로 살아낸 한 여성의 삶을 그린다. 이 작품은 데뷔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출간 전부터 미국의 대형 출판사 하퍼콜린스와 파격적인 2억 원대 선인세 계약을 맺으며 큰 화제를 모았다. 이는 아시아계 신인 작가에게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영미권 출판계의 높은 기대감을 보여주었다(홍지유, 2024).

이 소설이 받은 해외의 호평과 독자들의 수용성은 영미권 독자들이 K-팝이나 K-푸드를 넘어, 남북문제와 같은 한국의 복잡하고 민감한 역사적 맥락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공감할 준비가 되었음을 시사한다. 한국에서 나고 자란 후 미국에서 영문학을 전공했기에 작품 속에서는 다양한 한국 문화와 차용어가 녹아들어 있으며 특히 북한 관련 용어들이 많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의 작가적 배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탈북민이었던 이모 할머니의 삶과 교회 자원봉사를 통해 만난 다른 탈북민들의 증언이라는 점

에서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3.2 분석 기준 및 방법론

본 연구는 선정된 네 소설에 나타난 모든 한국어 차용 표현을 대상으로, 베이커(2018)와 베누티(1995)의 이론을 결합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석한다.

3.2.1 분석 대상의 범주화

수집된 한국어 차용어는 그 성격과 용례에 따라 OED 등재어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주요 범주로 분류한다. 다음 분류에서 문화고유어를 협의의 의미인 음식, 의복, 관습 등으로 제한하고 호칭, 호격 조사, 감탄사 및 단문을 구별하여 정서적인 면에서 분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의 호칭(umma, abeoji 등)과 호격조사(ya/ah)는 인물간 나이, 성별, 친족 관계를 명확히 표시하며, 관계의 정서적 깊이를 나타내는 ‘담화 표지(discourse marker)’⁷⁾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감탄사 단문과 같은 한국어 원형 발화는 단순 차용이 아니라 화자의 정체성 감정 문화적 위치를 즉각적으로 표지해줌으로써, 영문 텍스트 속에 한국어 감정과 문화적 리듬을 유지하는 고유한 문학적 장치가 된다.

- 1) OED 등재 문화고유어(CSI)와 호칭: hanbok, doenjang 등. 단지 호칭 중 ‘오빠’와 ‘언니’는 등재어에 포함되어 있어 <부록1> 등 범주를 옮김. (공인된 외래어로서의 위상 검증)
- 2) OED 비등재 문화고유어: miyeokguk, chima, han 등. (등재어와 비교)
- 3) OED 비등재 호칭 및 호격 조사: umma, abeoji 등 친족 호칭과 ajumma, agassi 등 사회적 호칭과 ya/ah 등 호격 조사 (정서적/사회언어학적 기능 분석)
- 4) OED 비등재 감탄사 및 단문: aigoo, uh-muh 등 감탄사와 Masisseo?와 같

7) “담화 표지는 순수한 어휘적 또는 명제적 의미를 넘어 대화의 흐름을 관리하고, 방향 전환을 표시하며, 화자의 정서적 입장이나 담화 및 공동 참여자에 대한 관계적 정렬을 알리는 화용론적 기능을 수행”(Schiffin, 1987, p. 31)

은 짧은 한국어 문장 (정서적/사회언어학적 기능 분석)

3.2.2 차용어 음차 전략 분류

수집된 모든 한국어 차용 표현은 베이커(2018)의 어휘적 비등가성 해결 전략 중 이국화와 관련된 요소를 중심으로 다음 세 가지 주요 전략으로 분류한다.

- 1) 설명 없는 음차(transliteration): 차용어만 사용하며 독자의 수용성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가장 적극적인 이국화 전략. OED 등재어와 비등재어 간 전략 비교
- 2) 음차+등가어/설명(transliteration + explanation): 차용어와 함께 의미를 풀이하거나(paraphrase), 인접 문장에서 영어 등가어와 병치하여 사용(e.g., yangban, aristocrat)하여 독자의 이해도를 높이면서 이국성을 유지하는 타협적 이국화 전략.
- 3) 이탤릭체 사용(italicization) 여부: 해당 단어가 ‘주변 언어(peripheral language)’로 취급되는지, 아니면 영어의 중심부로 통합되어 ‘평등한 언어’로 간주 되는지를 판단하는 문화정치적 지표로 분석.

3.2.3 분석 절차와 연구 방법론

4권의 분석 대상 소설에서 한국어 차용 표현(문화고유어, 호칭, 담화 표지 등)을 추출하여 <부록 1>과 같은 형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각 차용 표현을 ‘OED 등재 여부’, ‘범주(의식주 문화어, 호칭, 감탄사 등)’, ‘적용된 전략’에 따라 분류한다. 마지막으로 OED 등재어와 비등재어 간의 전략 사용 빈도를 비교하고, 작품 출간 연도에 따른 이탤릭체 사용 빈도의 변화를 코딩하여 분석한다.

분석에 앞서 밝히고자 하는 연구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대규모 코퍼스 기반의 빈도수 측정 등 정량적(quantitative) 분석보다는, 특정 문화고유어와 호칭 등이 텍스트 내에서 어떠한 문맥적 효과와 이국성을 창출하는지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정성적(qualitative) 텍스트 분석에 목적을 둔다. 수집된 코퍼스의 규모가 방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석 대상이 된 4권의 각기 다른 작품들에서 일반 명사, 호칭, 감탄사, 단문 등의 차용이 공통

적인 양상으로 발현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에 본 결과에서 드러나는 결과가 특정 작가 개인의 예외적인 문체적 선호도(idiosyncrasy)라기 보다는, 한류 시대 한국계 작가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광범위한 언어적 실천이자, 향후 한영 문학번역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이국화 규범의 경향성을 시사하는 유의미한 증거라 보았다.

4. 분석 결과

분석 부분에서는 1) OED 등재 한국어 문화어와 호칭, 2) 미등재 문화어와 호칭, 3) 미등재 조사, 4) 미등재 감탄사 순으로 번역을 살펴보고 분석하도록 하겠다. 4권의 소설에 등장한 조사 사례는 <부록 1>에 음차 방법과 함께 모두 수록되어 있다.

4.1 OED 등재어 사용 양상

4.1.1 OED 등재어에 음차 표기

OED 등재 단어의 경우 ‘deonjang(된장)’을 ‘soybean paste’라고 문화적 대체어로 풀어서 써 준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단지 <부록 1>에 나와 있는 것같이 ‘banchan’과 ‘side dishes’, ‘yangban’과 ‘aristocrats’ 등 동의어를 병기한 예외가 4회 발견되었다. 이를 통해 작가들이 OED 등재가 주는 단어의 위상과 한류의 영향력을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구체적인 단어 설명 없이 이탤릭체, 혹은 비 이탤릭체로 음차 표현해준 예시이다⁸⁾.

8) 예시문의 볼드체나 밑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저자의 표기이다. 본 연구의 예시문은 영어 원문을 중심으로 표기 전략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한국어 번역문을 반드시 병기할 필요는 없으나 원문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번역문을 부가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원문과 번역문을 구분하기 위해 원문은 영어 제목으로, 번역문은 한국어본 제목으로 인용하였다.

*음식, 식재료, 주류

<예시 1>

원문: Nearby the peddlers selling *gochujang* and *doenjang*, Sunja noticed two young Korean women selling fried wheat crackers. (Pachinko 158)

번역문: 선자는 **고추장**과 **된장**을 파는 행상들 옆에서 튀긴 통밀과자를 팔고 있는 젊은 조선 여자 두 명을 발견했다. (파친코 253)

<예시 2>

원문: “Well, I’m looking for some women to make all the **kimchi** and **banchan** for the restaurant.” (Pachinko 163)

번역문: “음, 식당에서 쓸 **김치**와 **반찬**을 만들어줄 여자들을 구하고 있어요.” (파친코 261)

<예시 3>

원문: This isn’t like the sad Asian fusion joint by your work, where they serve bell peppers in their **bibimbap** and give you the stink eye when you ask for another round of wilted bean sprouts. (Crying in H Mart 6)

번역문: 이 식당들은, **비빔밥**에 피망을 올려 내놓거나 숙주나물을 한 접시 더 달라 하면 대번에 싫은 기색을 보이는 알량한 회사 지정 아시아 퓨전 식당과는 차원이 다르다. (H 마트에서 울다 15)

<예시 4>

원문: I hated his weaselly face with its pointy chin and narrow, bashed-in nose, always reeking of *soju* and trouble. (8 Lives of a Century-Old Trickster 20)

번역문: 뽀족한 턱과 좁고 찌그러진 코, 노상 **소주** 냄새와 불길한 분위기를 풍기는 그의 족제비 같은 얼굴이 싫었다. (이름 없는 여자의 여덟가지 인생 39)

*의류

<예시 5>

원문: Yangjin sat up and reached for the muslin *hanbok* that she’d just removed, which was folded in a neat pile by her pillow. (Pachinko 14)

번역문: 양진은 일어나 앉아서, 조금 전에 가지런히 개어 베개 옆에 포개놓은 과목 **한복**을 집어 들었다. (파친코 32)

*호칭, 계급

<예시 6>

원문: They disappear to live with their sweethearts, to hide their pregnancies, to sell themselves, to become **gisaengs**. (The Forest of Stolen Girls 9) 정인과 살기 위해,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 몸을 팔기 위해, **기생**이 되기 위해 종적을 감추는 거야. (사라진 소녀들의 숲 26)

*단위

<예시 7>

원문: But I knew by memory the windy place a thousand li south of the port. (The Forest of Stolen Girls 1)

번역문: 그러나 항구에서 남쪽으로 천 리를 가면 나오는 바람의 땅을 똑똑히 기억한다. (사라진 소녀들의 숲 17)

각 예시문에 등장하는 차용어의 경우 독자가 정확한 의미를 알 수는 없어도 맥락 내에서 각각 음식이나 식재료, 의복, 건축물과 관련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는 있는 경우도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예시 5> 경우 ‘muslin’이라는 옷감 종류와 ‘removed(벗다)’와 ‘folded(개다)’ 등을 통해 ‘hanbok’이 의복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으며, <예시 9>에는 ‘sell themselves’와 ‘to become gisaengs’를 병기하고 있다. 차용어를 쓰고 문맥 내에서 대략적인 의미를 유추하는 이국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한국 문화를 알고자 하는 독자들의 언어 문화적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분석 텍스트 중에 한국어 차용어에 이탤릭체를 쓰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는 점이다. 『Pachinko』와 『8 Lives of a Century-Old Trickster』에서는 ‘kimchi(김치)’ 제외 모든 차용어, 즉 ‘galbi(갈비)’, ‘Chuseok(추석)’, ‘hanbok(한복)’, ‘agassi(아가씨)’ 등이 영문법을 따라 이탤릭체로 표기되었다. 그러나 <예시 3> ‘bibimbap(비빔밥)’, <예시 6> ‘gisaengs(기생)’, <예시 7> ‘li(리)’에서 볼 수 있듯이 자우너와 허주은 작가는 저서 전체의 한국어 음차 표기 시 이탤릭체를 쓰지 않고 있다. 에벤 조하르(Even-Zohar, 1990)는 번역문학과 문학 시스템의 위계를 설명하는 ‘다중체계이론’을 제안하며, 번역된 문학작품이나 차용된 외국어는 대부분 문학적 ‘주변 언어(peripheral language)’로 위치한다고 보았다. 이 맥락에서 볼 때 두 작가는 한

국어 단어를 이탤릭체 없이 일반 영어 단어처럼 다름으로써, 단어의 ‘주변 언어성(peripheral language status)’을 부정하고, 문화적 중심 언어로서의 영어 안에 자연스럽게 통합시키는 전략을 택했다. 즉, 단순히 스타일 문제가 아니라, 언어적 평등성을 제시하는 문화 정치적 목소리라고 할 수 있다. 트른카(Trnka, 2016)는 본인들의 작품에서 스페인어 단어에 이탤릭체를 사용하지 않는 관행을 고수하며 이탤릭체 사용은 영어에 대해 타언어의 차별을 심화하고 불필요한 타자화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던 주노 디아즈(Junot Díaz)와 대니얼 호세 올더(Daniel José Older) 등 스페인어 작가들의 예를 들면서, 여러 스타일 가이드(style guide)가 영어 문장 내 외국어 단어를 이탤릭체로 표기 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관례가 ‘언어적 주변화(marginalisation)’ 또는 ‘타자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어학자 파우저(2022)도 영어를 기본으로 설정해 외래어와 외국어의 기준을 정하고 외국어는 이탤릭체로 처리하는 관습은 배타적인 태도이며 영어 패권을 강화, 유지하는 언어 차별의 한 형태로 작동할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 영문 텍스트에서 모든 단어를 동일하게 표시하지는 논쟁이 있음을 언급한다. 관련하여 영어권에서 ‘김치(kimchi)’는 외래어⁹⁾로 굳어져서 자연스럽게 쓰고 있지만 외래어로 아직 인정받지 않은 ‘된장(deonjang)’은 외국어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탤릭체로 표시하는 것을 예로 들고 있다. <예시 2>는 이런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민진 작가가 ‘banchan(반찬)’은 외국어로 간주하여 이탤릭체로 썼으나 ‘kimchi(김치)’는 이미 영어에 편입된 단어라고 보고 이탤릭체로 쓰지 않은 것이 예시이다. 결국 자우너나 허주는 작가가 모든 차용어를 비 이탤릭체로 표현한 것은 한국어 차용어들을 이미 중심부 언어로 간주하고 있음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선도적인 자세라 할 수 있다. 이같이 영어 텍스트에 한국어 차용어를 이탤릭체 없이 자연스럽게 포함시킨 것은 베누티(1995)의 ‘이국화’ 규범을 한 단계 넘어, 한국어 자체를 영어권 문화의 일부로 중심화시키

9) 외국어가 국어로 되려면 의당 그 잣대로는 ‘한국어화(Koreanization)되었느냐가 중요한 기준’인데 ‘국어의 일부로 받아들여진 말, 한국어화’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의 인지적인 작용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객관적인 기준은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틀림없는 외래어가 아닌 외래어 언저리에 있는 단어들은 외국어와의 구분이 쉽지 않다(김종덕, 2017, pp. 67-68).

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4.1.2 OED 등재어 음차+등가어 병기

앞 장에서 밝혔듯 등재어 경우도 <예시 8, 9, 10>과 같이 차용어 사용 후 등가어를 병기한 예외도 있다. 즉, ‘aristocrat’과 ‘yangban’, ‘banchan’과 ‘side dishes’ 같이 같은 문장이나 인접한 문장 내에서 의미적 등가어와 차용어를 함께 써서 문맥에서 단어의 의미를 알 수 있게 하는 경우이다. 이렇게 하면 한국어 차용어를 써서 이국적 느낌을 전달하는 동시에 영어권 독자들이 새로운 단어를 익힐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한다.

<예시 8>

원문: “Those goddamn aristocrat sons of bitches sold us out. Not a single **yangban** bastard has a full set of balls.” (Pachinko 20)

번역문: “망할 양반들이 우릴 팔아넘겼다 아님니까. 배짱 있는 **양반**이 한 놈도 없심더.” (파친코)

<예시 9>

원문: We’re talking Korean restaurants that pack the table so full of **banchan side dishes**...(Crying in H Mart 6)

번역문: **반찬** 가짓수는 테이블 하나를 꽉 채우고도 자리가 모자랄 정도여서... (H 마트에서 울다 15)

<예시 10>

원문 “You should call me *Oppa*. You don’t have a brother, and I don’t have a sister. You can be mine.” (Pachinko P36)

번역문: “**오빠**라고 불러. 넌 오빠가 없고 난 여동생이 없으니 네가 내 여동생 하면 되겠다.” (파친코 64-65)

위 <예시 8>과 <예시 10>의 원문에 ‘aristocrat’과 ‘yangban’, ‘oppa’와 ‘brother’ 등으로 병기된 부분을 한영번역에 적용해 보면, OED 등재어라고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독자들을 위해 한번은 차용어로, 한번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등가어로 번역하여 독자들의 이해력을 높이는 동시에 한국어 고유의 분위기를 전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실제 조숙희(2015, p. 261)에서는

이같은 번역 방법 예시가 등장한다. 『엄마를 부탁해』의 “반찬이라도 뭐 다른 것을 만들 여유가 있음 덜했겠는디 밥에 심은 것이 똑같으니 맨 그 나물에 그 반찬(p. 72)”이 번역문에서는 각각 ‘side dishes’와 ‘panchan’¹⁰⁾으로 번역되었다.

4.2 OED 비등재 문화어 사용 양상

4.2.1 의식주 관련 문화어에 음차 표기

OED 등재되지 않은 의식주 관련 문화어 중 차용어로 표기된 단어들의 경우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예시 11> ‘hanji(한지)’와 같이 의식주, 관습, 사고 관련 일반적인 단어들이다. 예를 들어, ‘jeogori(저고리)’, ‘chima(치마)’, ‘Chuseok(추석)’, ‘jesa(제사)’ 등이다. 한류 콘텐츠를 즐기는 독자들이라면 설명 없이 표기된 OED 비등재어도 맥락 내에서 의미를 유추해 보거나 의식적으로 검색할 것이라 볼 수 있다.

<예시 11>

원문: The main house had only four **hanji**-screened wooden double doors.

번역문: 나무틀에 **한지**를 바른 문은 본체에 네 개밖에 없었다. (사라진 소녀들의 숲 39)

비등재 차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는 두 번째 경우는 각 책의 주제 관련 단어들을 차용어를 사용하여 강조하는 사례들이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해 한국 음식에 대한 향수를 그리고 있는 『Crying in H Mart』는 ‘tteokguk(떡국)’, ‘seollongtang(설렁탕)’, ‘miyeokguk(미역국)’ 같은 음식명과 함께 ‘Chang Gu(짬구)’, ‘ppeongtwigi(뽕튀기)’ 등 과자명, ‘ttukbaegi(떡배기)’, ‘dolsot(돌솥)’ 등 식기, ‘chamoc(참외)’, ‘sannakji(산낙지)’ 등 식재료에 이르는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남북 냉전기 등 격변기를 살아온 한 여인의 삶을 그리고 있는 『8 Lives of a Century-Old Trickster』에

10) 조숙희의 ‘반찬’의 번역 ‘panchan’과 달리 본 연구의 작가들은 <예시 9>와 <부록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banchan’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는 향후 한국어 음차 번역에서 일관성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는 <예시 12>와 같이 ‘songbun(성분)’, ‘banjang(반장)’, ‘bingdu(빙두)’, ‘kotchebi(꽃제비)’, ‘inminban(인민반)’, 등 북한 관련 단어들이 등장한다.

<예시 12>

원문: A host of young women with low *songbun* had chosen selling their bodies over losing their kids and siblings to starvation. (8 Lives of a Century-Old Trickster 146)

번역문: 출신 **성분**이 낮은 많은 젊은 여자들이 자식과 동생을 굶주림에 잃느니 차라리 몸을 파는 쪽을 선택했다. (이름 없는 여자의 여덟 가지 인생 210)

또한 15세기 조선 배경 무속 미스터리 소설, 『The Forest of Stolen Girls』에는 ‘kut(꺠)’, ‘oshuyutda(오시었다)’, ‘jeomjip(점집)’, ‘shinbyung(신병)’, ‘hahoetal(하회탈)’, ‘han(한)’ 등 단어들이 다수 차용되고 있다. 각 소설을 선택한 독자들은 특정 주제에 관심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관련 어휘에 차용어를 써주면 한국어와 문화를 더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영 번역에서도 소설의 주제 관련 단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차용 방법을 사용한다면 독자들의 역사적, 문화적 관심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4.2.2 OED 비등재어에 차용어+설명 표기

한국 문화고유어는 OED 비등재어 경우도 작가들이 차용어를 많이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부록 1>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등재어와 비등재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비등재어의 경우 차용어만으로 표현하기보다 설명을 추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OED 등재의 언어적 위상을 보여주는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시 13>을 보면 OED 등재어인 ‘hanbok(한복)’의 경우는 설명이 없고, ‘chima(치마)’, ‘jeogori(저고리)’ 경우 ‘chima dress’, ‘jeogori jacket’ 등 설명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비등재어는 표기 규칙이 정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chima’라도 설명이 추가된 경우와 아닌 경우가 한 작품 속에서도 혼재한다는 점이다. <부록 1>을 보면 ‘goot(꺠)’, ‘gomtang(곰탕)’, ‘hwatu(화투)’, ‘jesa(제사)’ 등 다양한 차용어들에 설명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작가들과 번역가들은

이와 같은 문화 전파 노력을 통해 새로운 OED 등재 후보군을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본다.

<예시 13>

원문: ...and pulled a spare **hanbok** out from my traveling sack: a **chima dress** and a **jeogori jacket**, both made of silk. (The Forest of Stolen Girls 108)

번역문: 봇짐에서 비단 **치마**와 **저고리** 여벌을 꺼냈다. (사라진 소녀들의 숲 138)

<예시 14>

원문: I figured that was the reason she'd stayed married to an obtuse stewbun like father: all because of **jeong** - that twisted feeling of attachment, that needless pity. (8 Lives of a Century-Old Trickster 63)

번역문: 나는 그것이 엄마가 아버지 같은 무지렁이 술주정뱅이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이유였을 거라고 생각했다. 모두 **정** 때문이라고, 뒤틀린 애착과 쓸데없는 동정심 때문이라고 말이다. (이름 없는 여자의 8가지 인생 63)

4.3 비등재 호칭 및 호격 조사의 사용 양상

4.3.1 호칭어에 차용어 표기

호칭이야말로 작가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설명 없이 차용어를 사용했다. 최근 많은 한류 드라마 속에 OED 비등재 ‘umma(엄마)’ ‘appa(아빠)’ 등 단어가 ‘oppa(오빠)’, ‘unni(언니)’, ‘hyung(형)’ 등 OED 등재어 만큼이나 자주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호칭어는 ‘ajeossi(아저씨)’, ‘agassi(아가씨)’, ‘abuji(아버지)’, ‘abeoji(아버지)’, ‘umma’(엄마), ‘halmoni(할머니)’, ‘emo(이모)’에 더불어 ‘halmang(할망)’, ‘ajimang(아지망)’ 등 방언까지 포함하고 있다. 사용양상을 분류해보면, 호칭의 경우 <예시 15>와 같이 소설 속에서는 인물들 간의 관계가 문맥 속에 드러나기 때문에 한국식 호칭을 써줘도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 음차해준 것으로 보인다.

<예시 15>

원문: “**Umma**, I think I sprai^d my ankle!” I cried. (Crying in H Mart 17)

번역문: “**엄마**, 아무래도 발목을 뺨 것 같아!” 나는 울면서 말했다. (H 마트에서 울다 33)

호칭어는 문맥 내에서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충분히 단어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예시 16> 같이 유추하기 쉽지 않은 경우 인접 문장에서 등가어 ‘old woman’과 ‘ajimang’을 같이 사용해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을 쓸 수 있다.

<예시 16>

원문: I saw an old woman sitting outside her hut, peeling garlic with her wrinkled fingers. I hurried my steps until I was near enough to call out, “**Ajimang!** Could you tell me if I’m going the right way?” (The Forst of Stolen Girls 17)

번역문: 한 **할머니**가 집 앞에 앉아 주름진 손으로 마늘을 까고 있었다. 목소리가 들릴 거리까지 황급히 다가가 외쳤다. “**이지망!** 길 좀 물어도 되겠소?”(사라진 소녀들의 숲 34)

4.3.2 호격 조사 ‘아/야’ 추가

분석 대상 텍스트를 조사하면서 발견한 차용어 사용은 명사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ya(야)’나 ‘ah(아)’ 등 호격 조사도 추가되었다. ‘아/야’는 일반적으로 아랫사람을 부르는 말에 사용되어 사적 관계를 확정하고 친밀감을 표현하는 표지로 쓰이는데, 이런 기능은 이제 ‘언니’, ‘오빠’, ‘형’, ‘누나’ 등의 친족호칭어나 사회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해당 대상과의 관계에서 친밀감 강화를 드러내기 위한 전략 표지로 그 사용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이유미, 2022, p. 345).

<부록 1>에서 볼 수 있듯이 연구 대상 중에는 『Pachinko』와 『The Forest of Stolen Girls』 등에서 한국어의 특징을 살려 호격조사를 표기하고 있다. 한국어 콘텐츠 <응답하라 1988>이나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는 친구 이름 뒤에 ‘아’나 ‘야’ 등 조사를 붙여, “덕선아”, “정환아” 등으로 감정적 친밀함,

다정함, 갈등 등을 나타낸다. 그러나 공간 제약이 있는 넷플릭스의 드라마 자막에는 호격 조사 ‘-야/-아’가 영어 자막에서 드러나지 않으며, 이는 캐릭터 간의 사회적 친밀도나 거리감, 유머 등을 표현하는데 제약이 되고 있다. 반면, 자막과 비교하여 문학작품에서는 호칭이 나오는 횟수가 빈번하지 않으며 자수 제한도 없으므로 다음 <예시 17, 18>들처럼 번역하는 것도 의미 있는 번역 전략이 될 것이다. 사람의 이름이 고유명사임을 고려하여 이탤릭체를 쓰지 않은 점, 이름과 호격 조사를 구별하기 위해 하이픈을 쓴 것이 표기상 특징이다. <예시 17>의 “Hyungok-ah! Hyunok-ah!”는 조사를 추가하는 동시에 문장을 감탄문으로 만들어 여인의 애절한 감정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예시 18>에서는 ‘Ddal(딸)’이라는 친족호칭어에 ‘ah’를 추가하여 “Ddal-ah”라고 함으로써 부녀간의 따뜻한 정을 나타내고 있다.

<예시 17>

원문: A woman behind me kept crying out, “**Hyungok-ah! Hyunok-ah!**”
(The Forest of Stolen Girls 38)

번역문: 뒤에서 한 여인이 계속해서 울부짖었다. “**현옥아! 현옥아!**” (사라진 소녀들의 숲 57)

<예시 18>

원문: *How fortunate she is, I thought, to be someone’s daughter. She could call out “Abeoji!” whenever she desired, and he would always answer in his warm voice, “Ddal-ah.”* (The Forest of Stolen Girls 70)

번역문: 운도 좋구나. 누군가의 딸로 살 수 있다니. 언제든 원할 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테고, 그럴 때마다 “**딸아**”라는 따뜻한 목소리를 들을 것이다. (사라진 소녀들의 숲 93)

이와 같은 전략은 같은 텍스트의 다른 부분인 <예시 19>와 비교를 해보면 차이를 알 수 있다. 무당 노경 심방이 자매들을 꾸짖는 상황에서는 ‘ah’나 ‘ya’ 등의 호격 조사 없이 ‘민환이’, ‘민매월’ 등으로 성과 이름을 함께 부르므로써 거리감이 느껴진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매월아’, ‘현옥아’ 등으로 부르며 애절하고 가까운 마음을 전달할 때와 톤을 완전히 바꾸어 엄격함을 드러낼 수 있다.

<예시 19>

원문: “**Min Hwani**,” she said, “ I knew the trouble you would cause when you came.” Then she turned her stern eyes to my sister. “And you, **Min Maewol**, you come with me.” (The Forest of Stolen Girls 93)

번역문: “**민환이**.” 노경 심방이 말했다. “올 때부터 네가 말썽을 일으킬 줄 알았다.” 그러더니 고개를 돌리고 엄한 눈으로 내 동생을 보았다. “**민매월**, 너, 너는 날 따라 오너라.” (사라진 소녀들의 숲 119)

문학번역에서도 이같이 상황별로 인물관계를 드러내줄 수 있는 호격 조사 사용 전략을 도입하면 인물관계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4.4 감탄사 및 단문의 사용 양상

4.4.1 감탄사에 차용어 표기

다음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uh-muh(어머)’나 ‘aigoo(아이구)’, ‘oi(어이)’ 같은 한국어 감탄사도 소설에 설명 없이 차용되고 있다. 이는 웹툰에서도 많이 드러나는 현상으로 전반적인 한류 콘텐츠의 약진으로 이미 많은 문화 콘텐츠에서 사용되는 기법이기에 가능한 방법이다. <부록 1>에서 분석된 감탄사의 경우 추가 설명을 한 경우는 없었다. 의성어는 소리를 반영하는 것이라 인류 보편적인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단지, 다음 예시 문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어 차용어임에도 영한번역 시 원문과 다른 소리로 번역되는 현상도 볼 수 있다.

<예시 20>

원문: “**Uh-muh--**” Yangjin uttered, startled and anxious. “We have to move him immediately. The others could get sick...”(22)

“**아이고.....**.” 양진이 놀라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내뱉었다. “당장 옮겨야 된다. 다른 사람도 병에 걸릴 수 있다...”(45)

<예시 21>

원문: Standing, she pressed a hand against her aching back and grumbled, “**Aigoo, aigoo.**”(19)

번역문: 그러더니 몸을 일으키고는 한 손으로 등을 짚으며 앓는 소리를

냈다. “아고게, 아고고.” (36)

4.4.2 단문에 차용어+설명 표기

요즘은 한류 팬들이 한국어로 노래 가사를 부르기도 하고 한국어 학습 열기도 높아 단문 전체를 차용어 사용하는 경우도 조사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그대로 음차를 하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한 17개의 단문 중 12개, 약 70%의 경우 다음 <예시문 22, 23>과 같이 차용어와 설명을 병기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Dwaeseo(됐어)’에 별다른 설명이 추가 되지 않은 <예시문 24>의 경우, “I snapped(내가 툭 쏘았다)”나 “I’ll investigate on my own(나 혼자 조사할거야)” 등 문맥에서 독자들은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예시 22>

원문: “Aigo! Dwaes-suh! That’s enough!”(Crying in H Mart 17)

번역문: “아이고! 됐어!” (34)

<예시 23>

원문: “Masitge deuseyo,” the man said with a slight bow, wishing us a good meal as he pushed his cart back to the counter.(Crying in H Mart 61)

번역문: “맛있게 드세요.” 사장이 허리를 살짝 숙이면서 말하고는 카트를 끌고 계산대로 돌아갔다. (108)

<예시 24>

원문: Father was missing, and all she could think about was her own feelings. “Dwaeseo,” I snapped. “I’ll investigate on my own.”(Forest of Stolen Girls 32)

번역문: 아버지가 사라졌는데 동생은 그저 자기 감정이 우선이었다. “됐어.” 내가 툭 쏘았다. “나 혼자 조사할거야.”

위의 예문들을 종합해보면, ‘Aigoo’, ‘Uh-muh’와 같은 감탄사는 놀람, 고통, 당혹감 등 화자의 갑작스러운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며 문맥적 해석을 최소화하고 감정 전달의 즉각성을 높이고 있으며 ‘축복하기’나 ‘친절 표

현하기’와 같은 정형화된 문화적 화행을 수행하기 위해 ‘Masitge deuseyo(맛있게 드세요)’와 같은 단문을 차용하고 ‘wishing us a good meal’이란 설명을 추가하는 것은 독자에게 이국 문화의 정취(cultural flavor)를 직접 느낄 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4.5 분석 총정리

지금까지 행한 소설 속 음차표현 분석을 통해 한영 번역에 반영할 수 있는 점은 다음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한국어 음차 표현이 두드러지는 경우는 OED 등재어뿐만 아니라 비등재 문화특수어, 호칭, 호격 조사, 감탄사, 단문 등 매우 다양한 경우로 확대되고 있어 번역가가 이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OED 등재어는 ‘공인된 외래어’로서의 위상을 가지며, 대부분 별도의 설명이나 문화적 대체어 사용 없이 과감한 음차 전략이 사용되었다. 이는 작가들이 OED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독자들의 수용성을 확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doenjang’이 2017년 OED에 등재된 이후, 더 이상 ‘soybean paste’로 대체 번역될 필요가 없어진 시대적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OED 비등재어의 경우, 단어의 성격에 따라 전략이 세분되었다. ‘ajumma’나 ‘jeogori’와 같이 문화고유어들은 설명 없는 음차 전략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각 소설의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단어들, 예를 들어 북한 관련 내용이 주제인 경우 ‘kkotjebi’, ‘bingdu’ 등 관련 단어, 샤머니즘이 주제인 경우 ‘shinbyung’, ‘pudakgeori’, ‘jeomjip’ 등 전문성을 띤 관련 단어들, ‘차용어를 써 준 후 설명하는 전략을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는 경향이 뚜렷했다.

넷째, 주목할 만한 발견은 ‘이탤릭체 사용의 감소’라는 시대적 흐름이다. 2017년 작 『Pachinko』에서 ‘kimchi’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용어에 이탤릭체를 사용한 반면, 2021년 이후 출간된 『Crying in H Mart』와 『The Forest of Stolen Girls』는 모든 차용어에서 이탤릭체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한국어를 더 이상 낯선 ‘주변 언어’로 취급하지 않고, 영어 텍스트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통합시키려는 작가들의 강력한 문화 정치적 의지를 보여준다. 향후 ‘kimchi’ 뿐만 아니라 적어도 모든 OED 관련 단어는 이탤릭체를 써주지 않

는 것을 제안한다.

다섯째, 호칭어와 호격 조사의 적극적인 음차는 ‘정서 번역’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umma’, ‘appa’와 같은 호칭어는 문맥 속에서 인물간 관계를 보여주며 자연스럽게 사용되었고, ‘-ah/-ya’와 같은 호격조사의 음차는 기존 번역에서는 포착하기 어려웠던 인물 간의 친밀감, 애정, 다급함과 같은 미묘한 감정의 결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효과적인 장치로 활용되었다.

여섯째, 지역 방언이나 한국어 단문까지 텍스트에 포함시키고 이를 설명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이국적인 느낌을 극대화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한류의 세계적 확산 속에서 영미권 독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한국계 작가들의 영문 소설 네 편을 분석하여, 이들 작품에 나타난 한국어 차용어의 사용 양상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영 문학번역의 새로운 음차 번역 기준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OED 등재어는 물론 다양한 비등재 문화어, 호칭, 호격 조사, 감탄사 등이 설명 없이, 때로는 이탤릭체 표기도 생략된 채 과감하게 차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영미권 독자들의 한국 문화 어휘에 대한 수용성이 번역계의 기존 통념을 넘어 크게 확장되었음을 보여주는 실증적 증거로 한영 문학번역의 규범도 이를 수용할 시기가 왔음을 시사한다. 즉, 한국계 작가들이 보여준 과감하고 섬세한 차용어 사용 전략은 번역가들이 더 이상 독자의 이해도를 과도하게 우려하여 원문의 문화적 고유성을 희석시키는 ‘자국화’ 전략에 머무를 필요가 없음을 증명한다.

마침 본 연구가 제안하는 ‘전략적 이국화’ 현상이 단지 문학계 내부의 실험적 논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영미권 주류 대중문화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패러다임 전환과 궤를 같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등장했다. 넷플릭스 누적 3억 뷰를 돌파하며 2026년 골든글로브 2관왕(장편 애니메이션상, 주제가상)을 석권한 할리우드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이다(박원희, 2026). 소니 픽처스라는 할리우드 거

대 자본이 제작한 이 작품은 무속 신앙과 같은 한국적 모티브를 서사의 중심에 놓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 빌보드 ‘핫 100’ 3위에 오른 메인 OST <골든(Golden)>에서 핵심 후렴구를 한국어 가사 ‘어두워진 앞길 속에’, ‘영원히 깨질 수 없는’, ‘밝게 빛나는 우린’과 같은 한국어 노랫말을 의도적으로 포함시키며, 한국어를 OST의 핵심 요소로 설정한다(신주영, 2025). 감독과 제작진은 인터뷰에서 ‘한국어를 넣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다고 밝혔다(김보영, 2025). 이는 한국어 가사가 번역이나 자국화가 아니라, 영어 메인 구조 안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차용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공 사례이며 한국어가 더 이상 영미권 수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자국화(domestication)’되어야 할 낮은 주변부 언어가 아님을 보여준다.

이제 문학번역계도 폭발적으로 확장된 독자들의 문화적 수용성을 인식하고, 텍스트 내에 한국어의 고유한 리듬과 정서를 드러내는 이국화 방법을 모색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이는 무조건적 음차가 아니라, OED 등재 여부, 한류 콘텐츠 내 인지도, 작품의 주제와의 연관성, 인물간 관계와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명 없는 음차’, ‘음차+설명’, ‘이탤릭체 생략’ 등 다양한 이국화 전략을 적극적이면서도 섬세하게 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시도는 한국 문학 고유의 맛과 정서를 보존하는 동시에, 영어의 지평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학술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원문-번역문 대조 분석에서 벗어나, 영미권에서 문학성과 상업성 면에서 성공을 거두어 ‘독자 수용성’이 어느 정도 입증된 한국계 작가들의 영문학 작품을 분석 데이터로 삼아 방법론적으로 독창성이 있다. 영어로 창작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번역적 사고(translational thinking)의 산물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은, 작가들이 이미 번역가처럼 도차어 독자를 염두에 두고 한국어 요소를 배치하는 창조적이고 전략적인 사고를 하고 있으며 ‘번역 행위로서의 글쓰기’를 하고 있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OED 등재어, OED 비등재어, 호칭, 호격조사, 감탄사, 단문 등 범주를 나누고 구체적인 음차 번역 가능성과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실제 번역가와 출판계에 적용 가능한 실용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다. 세 번째로는 작가들이 한국어의 ‘위상 제고’를 위해 의도적으로 다양한 전략을 수행한다는 호

름을 포착했다. 예를 들어 한국어를 영어의 주변 언어로 보는 것을 거부하여 ‘이탤릭체 사용 감소’와 같은 변화가 일고 있는 점, 호칭, 호격 조사, 감탄사, 단문 등 다양한 한국어 표현을 그대로 차용하여 의도적으로 이질감을 줌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한국적 정서와 담화 리듬을 직접 체험하게 한다는 사실 등이다. 이는 문화적 차이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텍스트의 감각적 문화적 충위를 확장하는 문학적 시도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OED 등재 현상과 팬덤의 역할을 연관 지어, 언어의 전파가 더 이상 하향식(top-down)이 아닌, 팬과 사용자가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으로 이루어진다는 시대의 변화를 번역 연구에 접목시켰다.

본 연구에는 분명한 한계도 있다. 우선 네 권의 상업적, 문학적 성공을 거둔 소설을 분석하기는 했으나 연구 결과를 한국계 영문학 전체의 경향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각 작품의 차용어 선택에서도 책 전체를 다루지 못하고 일부분을 채택했기에 본격적으로 정량적 분석을 하지 못했다는 방법론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더 폭넓은 장르와 작가를 대상으로 한 정량적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영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면서 과감한 창작행위와 언어 전략을 구사하는 한국계 작가들의 입장과 한국어 원작을 영어로 번역하는 번역가의 상황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번역가는 원문 작가의 의도, 출판사, 번역 브리프(의뢰서) 등 주변의 영향과 제약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즉, 작가의 창작행위는 문화고유어 처리에 있어 번역가들보다 자국화 규범의 구속을 덜 받는다는 면에서 이들이 사용한 과감한 차용 전략을 한영 번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차용어 사용이라는 문제는 번역가의 자율성 범위를 어디까지 보는가와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영문학 작품과 한영 번역 작품과의 직접 비교 분석을 통해 창작과 번역의 전략적 차이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작품의 성공을 ‘독자 수용성’의 간접적인 증거로 삼았으나, 팬이 아닌 문학작품의 독자들이 개별 차용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실증 연구를 한 것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이들을 보완하여 향후 다양한 후속 연구를 진행할 수 있길 바란다.

참고문헌

<1차 자료>

- Lee, M. (2017). *Pachinko*. Grand Central Publishing.
- Hur, J. (2021). *The forest of stolen girls*. Feiwel & Friends.
- Lee, M. (2024). *8 lives of a century-old trickster*. Virago Press.
- Zauner, M. (2021). *Crying in H Mart: A memoir*. Alfred A. Knopf.

<2차 자료>

- 권오숙. (2014). 한국 문학 텍스트 영역(英譯)에 나타난 문화소 번역의 경향 연구. *통번역학연구*, 18(3), 263-289.
- 김남중. (2022. 12. 15.). 사라진 소녀들 뒤에 숨은 가슴아픈 한국적 서사. *국민일보*.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77931>
- 김보영. (2025. 10. 14). ‘케데헌’ 이제 “‘골든’ 한국어 가사 고음, 반드시 필요했던 장치”.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00486642333248&mediaCodeNo=258>
- 김영신. (2016). 이국화인가 자국화인가: 한강의 『채식주의자』 번역을 중심으로. *동서비교문학저널*, 37, 37-55.
- 김정우. (2021). OED에 나타난 한류의 영향력에 대한 고찰 — 2021년 9월 신규 업데이트 단어들을 중심으로. *문화영토연구*, 2(2), 5-37
- 김종택. (2017). 외래어와 외국어, 그리고 국어. *새국어생활*, 27(1), 67-89.
- 김현유. (2022. 12. 31.). 옥스퍼드 사전에 실린 ‘한국어’의 의미는 우리가 아는 한국어와는 다르다. *에스콰이어*. <https://www.esquirekorea.co.kr/article/73844>
- 류지영. (2025. 1. 7.). 한류의 힘...‘달고나’ ‘떡볶이’ ‘노래방’ 등 英 옥스퍼드 사전 등재.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international/2025/01/07/20250107500188>
- 박원희 (2026. 1. 12). 골든글로브 2관왕에 빛난 ‘케데헌’...K컬처 K팝 품은 흥행작.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112076351005>

- 신상범. (2019). 문학텍스트의 번역전략 연구 — 문화고유어를 중심으로. *통역교육연구*, 17(1), 111-133.
- 신주영. (2025. 10. 15.). ‘케데헌’ 이재 “‘골든’에 한국어 가사 넣는 것 중요하다 그레미상 받고파”.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10151640001>
- 윤효승. (2022).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된 한국어 어휘의 분석: 한국어교육의 관점에서. *문화와 융합*, 44(2), 127-146.
- 이유미. (2022). 호격조사 ‘아/야’의 전략적 사용과 어휘화. *지식과 교양*, 45, 329-350.
- 임순정. (2014). 해외홍보물 번역 지침 수립을 위한 한불 번역 실태 조사 — 문화고유어를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6(1), 175-202.
- 장희동. (2025). 존재와 되기: 『H마트에서 울다』에 나타난 문화 기억과 문화 정체성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89, 99-130.
- 조숙희. (2015). 베누티의 이국화로 본 김지영의 번역 텍스트 Please Look After Mom: 문화특정어를 중심으로. *영어권문화연구*, 8(3), 253-271.
- 파우저. (2022. 10. 26.). 영어에서의 이탤릭체 표기와 언어 포용성. *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64390.html>
- 한강. (2007). *채식주의자*. 창비.
- 한강. (2015). *The vegetarian* (D. Smith, 번역). Portobello Books. (원본 출판 2007년)
- 홍지유. (2024. 7. 31.). 첫 소설이 영어소설...역대 인세 미리 받은 이미리내.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7297>
- Ahn, H., & Kiaer, J. (2021). Pop culture words: How can K-Wave turn Korean words into global, translingual words? *English Today*, 37(3), 178-187.
- Ahn, H., & Kiaer, J. (2024). Translingual English words of Korean origin and beyond: Skinsip, fighting, chimaek. *Asian Englishes*, 26(1), 69-83.
- Baker, M. (2018). *In other words: A coursebook on translation* (3rd ed.). Routledge.
- Bassnett, S. (2013). *Translation studies* (4th ed.). Routledge.
- Even-Zohar, I. (1990). The position of translated literature within the literary

- polysystem. *Poetics Today*, 11(1), 45-51.
- Kiaer, J. (2023). *The language of Hallyu: More than polite*. Routledge.
- Lee, K. (2017. 2. 2.). A rich, poignant novel about a Korean family in Japan. *NYT*.
<https://www.nytimes.com/2017/02/02/books/review/pachinko-min-jin-lee.html>
- National Book Foundation. (2017). National book awards.
<https://www.nationalbook.org/books/pachinko/>
- Newmark, P. (1988). *A textbook of translation*. Prentice hall.
- Salazar, D. (2025a). Daebak! The OED gets a K-update. *Oxford Dictionary*.
<https://www.oed.com/discover/daebak-a-k-update?tl=true>
- Salazar, D. (2025b). Introduction to words of Korean origin. *Oxford Dictionary*.
<https://www.oed.com/discover/introduction-to-words-of-korean-origin>
- Sarah S. (2017. 8. 7.). Crying in H Mart by Michelle Zauner review — A self-deprecating and honest memoir.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books/2021/aug/07/crying-in-h-mart-by-michelle-zauner-review-a-self-deprecating-and-honest-memoir>
- Schiffirin, D. (1987). *Discourse marke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im, S. (2025. 1. 7.). Oxford English Dictionary adds 7 Korean words, including ‘dalgona’. *Yonhap News*.
<https://en.yna.co.kr/view/AEN20250107002800315>
- Trnka, K. (2016). *Foreign word alert, foreign word alert: Rethinking editorial approaches to the italicization of foreign terms*. [Master’s thesis, Portland State University]. Retrieved November 10, 2025, from
https://pdxscholar.library.pdx.edu/cgi/viewcontent.cgi?article=1018&context=eng_bookpubpaper
- Toury, G. (1995).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and beyond*. John Benjamins.
- Venuti, L. (1995).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A history of translation*. Routledge.

<부록 1> OED 등재어 기준 음차표현 예시, 적용 전략, 이탤릭체 유무

(출처 소설: A: Pachinko, B: 8 Lives of a Century-Old Trickster, C: Crying in H Mart
D: The Forest of Stolen Girls)

*OED 등재어, 이후는 비등재어로 의식주 문화어, 호칭, 호격조사, 감탄사, 단문 순

범주(OED 등재어, 비등재 문화어, 호칭, 감탄사, 단문 등)	음차 전략	차용어	이탤릭체	출처 소설 (쪽수)
OED 등재어	음차	banchan (반찬)	O	A (163)
OED 등재어	음차	banchan (반찬)	X	C (9, 27)
OED 등재어	음차	bibimbap (비빔밥)	X	C (6)
OED 등재어	음차	chaebol (재벌)	O	B (152)
OED 등재어	음차	doenjang (된장)	O	A (158)
OED 등재어	음차	deonjangjigae(된장찌개)	X	C (163)
OED 등재어	음차	gimbap (김밥)	X	C (80)
OED 등재어	음차	gisaeng (기생)	X	D (9)
OED 등재어	음차	gochujang (고추장)	O	A (158)
OED 등재어	음차	gochujang (고추장)	X	C (8, 10)
OED 등재어	음차	hanbok (한복)	O	A (14)
OED 등재어	음차	hanbok (한복)	O	B (24)
OED 등재어	음차	hanbok (한복)	X	C (34, 141)
OED 등재어	음차	hanbok (한복)	X	D (111, 153)
OED 등재어	음차	kimchi (김치)	X	A (159, 163)
OED 등재어	음차	kimchi (김치)	X	C (4, 123)
OED 등재어	음차	li (리)	X	D (1, 27)
OED 등재어	음차	makgeolli (막걸리)	O	B (20)
OED 등재어	음차	ondol (온돌)	O	A (70)
OED 등재어	음차	samgyupsal (삼겹살)	X	C (4)
OED 등재어	음차	soju (소주)	O	B (20)
OED 등재어	음차	tteokbokki (떡볶이)	X	C (9)
OED 등재어	음차	galbi (갈비)	O	A (164)
OED 등재어	음차	unni (언니)	X	C (93, 104, 105)
OED 등재어	음차 + 등가어	banchan (반찬)	X	C (6, 14)
OED 등재어	음차 + 등가어	oppa (오빠)	O	A(36)

범주(OED 등재어, 비등재 문화어, 호칭, 감탄사, 단문 등)	음차 전략	차용어	이탈릭체	출처 소설 (쪽수)
OED 등재어	음차 + 등가어	yangban (양반)	O	A (20)
OED 등재어	음차 + 설명	tteokbokki (떡볶이)	X	C (7-8)
의식주 문화어 (이하 같음)	음차	back-il (백일)	O	A (8)
문화어	음차	banjang (반장)	O	B (134)
문화어	음차	chima (치마)	O	A (76)
문화어	음차	Chuseok (추석)	O	A (56)
문화어	음차	danmuji (단무지)	X	C (4)
문화어	음차	gwanbok (관복)	X	C (34)
문화어	음차	haemulpajeon (해물파전)	X	C (44)
문화어	음차	han (한)	X	D (39)
문화어	음차	hangari (항아리)	X	C (33)
문화어	음차	hanji (한지)	X	D (21, 27)
문화어	음차	inminban (인민반)	O	B (134)
문화어	음차	jangot (장옷)	X	D (143, 144, 153)
문화어	음차	jeogori (저고리)	O	B (27)
문화어	음차	jeomjip (점집)	X	D (21)
문화어	음차	jesa (제사)	O	A (76)
문화어	음차	Jesa (제사)	X	C (9)
문화어	음차	jjajangmyeon (짜장면)	X	C (8, 123)
문화어	음차	kong bap (콩밥)	X	C (27)
문화어	음차	kut (꺾)	X	D (26, 56, 98, 110)
문화어	음차	pajeon (파전)	X	C (80)
문화어	음차	songbun (성분)	O	B (146)
문화어	음차 + 등가어	punae (부네)	X	D (85)
문화어	음차 + 설명	bingdu (빙두)	O	B (180)
문화어	음차 + 설명	chamoe (참외)	X	C (4)
문화어	음차 + 설명	Chang Gu (짱구)	X	C (11)
문화어	음차 + 설명	chima (치마)	X	D (108)
문화어	음차 + 설명	Chuseok (추석)	O	B (28)
문화어	음차 + 설명	daenggi (댕기)	X	D (5)
문화어	음차 + 설명	gackju (객주)	X	D (58)

범주(OED 등재어, 비등재 문화어, 호칭, 감탄사, 단문 등)	음차 전략	차용어	이탈릭체	출처 소설 (쪽수)
문화어	음차 + 설명	ganjang gejang (간장게장)	X	C (27)
문화어	음차 + 설명	gyeranjjim (계란찜)	X	C(82)
문화어	음차 + 설명	gomtang (곰탕)	O	B (21)
문화어	음차 + 설명	Goot (갯)	O	B (40)
문화어	음차 + 설명	haeryo (해녀)	X	C (198)
문화어	음차 + 설명	hahoetal (하회탈)	X	D (85)
문화어	음차 + 설명	han ah reum (한아름)	X	C (3)
문화어	음차 + 설명	hwatu (화투)	X	C (29)
문화어	음차 + 설명	jjamppong (짬뽕)	X	C (6, 13)
문화어	음차 + 설명	jeogori (저고리)	X	D (8, 41, 108)
문화어	음차 + 설명	jeong (정)	O	B (63)
문화어	음차 + 설명	jeongnang (정낭)	X	D (59, 123, 127)
문화어	음차 + 설명	jeoseulsari (저술살이)	X	D (30, 96)
문화어	음차 + 설명	jipsin (짚신)	X	D (72)
문화어	음차 + 설명	jjimjilbang (짬질방)	X	C (44)
문화어	음차 + 설명	kongguksu (콩국수)	X	C (96)
문화어	음차 + 설명	kotchebi (꽃제비)	O	B (177)
문화어	음차 + 설명	miyeokguk (미역국)	X	C (4)
문화어	음차 + 설명	mul naengmyonn (물냉면)	X	C (9)
문화어	음차 + 설명	oreum (오름)	X	D (152, 154)
문화어	음차 + 설명	ppeongtwigi (뽕튀기)	X	C (5)
문화어	음차 + 설명	pojangmacha (포장마차)	X	C (9)
문화어	음차 + 설명	pudakgeori (푸닥거리)	X	D (82)
문화어	음차 + 설명	samgyetang (삼계탕)	X	C (43-44)
문화어	음차 + 설명	sangbang (상방)	X	D (59)
문화어	음차 + 설명	sannakji (산낙지)	X	C (22)
문화어	음차 + 설명	seollongtang (설렁탕)	X	C (10)
문화어	음차 + 설명	shinbyung (신병)	X	D (21)
문화어	음차 + 설명	tokki (토끼)	X	C (198)
문화어	음차 + 설명	tteokguk (떡국)	X	C (3)
문화어	음차 + 설명	Wokou (왜구)	X	D (5)
문화어	음차 + 설명	yeou (여우)	X	C (198)

범주(OED 등재어, 비등재 문화어, 호칭, 감탄사, 단문 등)	음차 전략	차용어	이탈릭체	출처 소설 (쪽수)
문화어	음차 + 설명	yeoulmok (여울목)	O	B (19)
문화어	음차 + 설명	yobo (요보) *한국인 비하어	O	A (30)
등재/비등재 혼용 문화어	음차 + 설명	Hangul Hakkyo (한글 학교)	X	C (80)
등재/비등재 혼용 문화어	음차 + 설명	soondubu jjigae (순두부 찌개)	X	C (43)
호칭	음차	abaji (아방)	X	D (131)
호칭	음차	abeoji (아버지)	X	D (60, 61, 70)
호칭	음차	abuji (아버지)	O	A (91)
호칭	음차	agassi (아가씨)	O	A (162)
호칭	음차	agassi (아가씨)	X	D (24, 190, 191, 194, 204)
호칭	음차	ajeossi (아재)	O	A (85)
호칭	음차	ajimang (아지망)	X	D (21 3회, 95)
호칭	음차	ajumma (아줌마)	O	B (1)
호칭	음차	ajumoni (아지매)	O	A (12, 13)
호칭	음차	emo (이모)	X	C (25, 26, 31, 50, 85, 92)
호칭	음차	emo boo (이모부)	X	C (26)
호칭	음차	halmang (할망)	X	D (115, 120)
호칭	음차	halmoni (할머니)	X	C (25, 28, 29, 31, 35, 80)
호칭	음차	omoni (어무이)	O	A (94)
호칭	음차	umma (엄마)	X	C (17, 33, 35, 91, 121, 152)
호칭	음차	yobo (여보)	O	A (106, 111)
호칭	음차 + 등가어	appa (아빠)	O	B (82)
호칭	음차 + 등가어	ddal-ah (딸아)	X	D (66)
호칭	음차 + 등가어	halmoni (할머니)	X	C(24)
호칭	음차 + 등가어	yeobo (여보)	O	B (111)
호칭	음차 + 설명	ajimang (아지망)	X	D (17)
호칭	음차 + 설명	jeondosa-nim (전도사님)	O	B (206)
호칭	음차 + 설명	unni (언니)	X	C (94)
호격 조사	음차 (하이픈)	Dokhee-ya (덕희야)	X	A (22)

범주(OED 등재어, 비등재 문화어, 호칭, 감탄사, 단문 등)	음차 전략	차용어	이탈릭체	출처 소설 (쪽수)
호격 조사	음차 (하이픈)	Fatso-ya (똥보야)	X	A (17)
호격 조사	음차 (하이픈)	Hwani-yah (환이야)	X	D (26 등)
호격 조사	음차 (하이픈)	Hyunok-ah (현옥아)	X	D (37, 38 등)
호격 조사	음차 (하이픈)	Macwol-ah (매월아)	X	D (30, 31 등)
호격 조사	음차 (하이픈)	Sunja-ya (선자야)	X	A (38)
호격 조사	음차 (하이픈)	Ddal-ah (딸아)	X	D (70)
감탄사	음차	Aigo! (아이고)	X	C (17)
감탄사	음차	Aigoo, aigoo (아고개, 아고고)	X	D (19)
감탄사	음차	Oi (어이)	X	D (67)
감탄사	음차	Uh-muh-- (어머--)	O	A (22)
감탄사	음차	Waaaaah (우와)	O	A (85)
감탄사/단문	음차	AY-CHAM WHEN-IL-EEYA?! (아이참, 웬일이야?!)	X	C (17)
감탄사/단문	음차 + 설명	Aigo yeppeu! (아이고 예뻐!)	X	C (22)
단문	음차	Dwaeseo (됐어)	X	D (32)
단문	음차	Eodigamsuggwa? (어디갑수파)	X	D (17)
단문	음차	Jinja masisseo (진짜 맛있어)	X	C (71)
단문	음차	JOHTAH! (좋다!)	X	C (29)
단문	음차 + 설명	Dwaes-suh! (됐어!)	X	C (17)
단문	음차 + 설명	AH PEO! (아퍼!)	X	C (149)
단문	음차 + 설명	chunhangut (친한 것)	X	D(139)
단문	음차 + 설명	Gungmul masyeo (국물 마셔)	X	C (97)
단문	음차 + 설명	Gwaenchanh-a (괜찮아)	X	C(118 등)
단문	음차 + 설명	Jal jass-eo? (잘 잤어?)	X	C (200)
단문	음차 + 설명	Masisseo? (맛있어?)	X	C (71)
단문	음차 + 설명	Masitge deuseyo (맛있게 드세요)	X	C (61)
단문	음차 + 설명	Oshyutda (오시었다)	X	D (43-44)
단문	음차 + 설명	Ukgae pee-goo! (어깨 펴고!)	X	C (18)
단문	음차 + 설명	Uljima (울지마)	X	C (201)

Shifting translational norms in the Hallyu era: Foreignization in Korean-into-English literary translation

Soon Mi Kim

Division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bstract

Against the backdrop of Hallyu's global expansion and the increasing inclusion of Korean loanwords in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OED), this study proposes new norms for transliteration in Korean-into-English literary translation. By analyzing four highly successful English-language novels by Korean-heritage authors—*Pachinko*, *Crying in H Mart*, *The Forest of Stolen Girls*, and *8 Lives of a Century-Old Trickster*—the research categorizes Korean loanwords and evaluates three transliteration strategies: bare transliteration, transliteration plus explanation, and the omission of italics. The findings reveal that OED-listed words are predominantly transliterated without explanation, whereas unlisted items frequently require accompanying context. Notably, among the four analyzed texts, the two novels published after 2021 abandon the use of italics for Korean vocabulary. By treating these cultural items as unmarked, standard lexicon rather than 'foreign' anomalies, the authors demonstrate a growing confidence in Anglophone readers' receptivity. Ultimately, this study offers concrete implications for translation practice: rather than relying on traditional domesticating methods, translators are encouraged to adopt strategic foreignization—differentiating transliteration strategies based on word familiarity and integrating contextual cues—to authentically preserve the linguistic and cultural texture of the source text.

Keywords: translational norms; foreignization; transliteration; literary translation, Korean wave (K-culture)

키워드: 번역 규범, 이국화, 음차번역, 문학번역, 한류(K-문화)

김순미
숙명여자대학교 영문학부 부교수
smikim@sookmyung.ac.kr

논문 투고일: 2026년 1월 20일
1차 심사 완료일: 2026년 3월 2일
2차 심사 완료일: 2026년 3월 8일
게재 확정일: 2026년 3월 16일